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신규인력 채용”

## 중기중앙회, 채용동향 조사

평균 6.6명 ... 생산직 수요 최대 '경력 선호' 38%, 고령자 부정적 "기업-청년간 일자리 매칭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돼 있는 중소기업 10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1.0%가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으며, 평균 6.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계획이 있는 직무로는 '생산직' (44.7%) 비중이 높

았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생산직 채용계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 대체로 '경력직(37.6%)'을 선호하고 있으나, '별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41.4%)도 높게 조사됐다. 전년 대비 올해 채용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62.9%이었으며,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는 응답(27.4%)이 축소한다는 응답(9.7%)을 크게 상회했다.

올해 인력운용현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과반수 이상(55.7%)의 중소기업이 인력 상황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필요인원 대비 재직인원 비율은 평균 90.9%로 전년 대비 8%p 증가했으며, 필요인원의 '100%' 이상을 채용한 기업 역

시 49.9%로 지난해(29.3%)보다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이슈인 채용공고 상·급여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8.7%)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38.8%)이 많았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사전 동의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다'(48.8%)는 점을 첫손으로 꼽았으며,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65.6%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고령자 채용에 대해서는 고령자 채용 의향이 '없다'는 의견(63.0%)이 '있다'

는 의견(37.0%)보다 1.7배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활용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낮은 생산성'(32.5%), '높은 인건비'(25.7%), '조직 내 세대 갈등 발생 가능'(24.0%) 등을 꼽았다.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상이한 응답을 보였다. IT서비스업, 정보통신업종의 경우 높은 인건비가 부담된다(40.0%)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제조업의 경우 '낮은 생산성'(37.2%)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된다(25.9%)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활용에 긍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는 '숙련 인력 유입·유지'(59.6%)를 꼽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령자 채용이 노동력 부족 해소(43.2%)에 도움이 된다

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수 중소기업 대부분이 신규 채용 의사가 확실한 만큼 채용 기업과 구직 청년 간의 활발한 일자리 매칭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 내 '우수 일자리 채용정보', '일자리 지도 탐색' 등 카테고리 접근성을 보완하고, 기업정보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 채용, 채용공고 상 임금 공개 의무화 등 최근 고용 정책 이슈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일자리 정책 건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광주은행 '광은명장제도' 직원 역량 강화 '톡톡'

전반기 14개 부문 40명 선정 직원 사기 진작·영업력 제고

광주은행이 운영중인 '광은명장제도'가 직원들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은명장제도'를 통해 선정된 올해 전반기 '광은명장' 대상자 총 40명을 선정, 시상하고, 영업력이 우수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평가하는 '광은명장제도'는 수신, 여신, 자산관리 등 총 14개 부문의 명장들을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는 광주은행의 대표

적인 포상제도다. 이 제도는 급변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경쟁력 확보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영업동기 북돋움 조성 및 긍정적 영업문화 확산을 위해 2개월 단위로 'Pre(예비)명장'을 선정해 각 부문별 명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노사간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직원간 과열 경쟁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광주은행만의 특색있는 영업문화로 정착됐으며, 갈등과 반목의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광주은행 조직문화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권범 기자**

##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로 상향...최고 연 6%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취급 은행의 최종금리가 확정됐다.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연 4.5%로 상향 조정됐으며 참여 은행들은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와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참여 은행 모두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기본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연 4.5%를 제공한다. 이어 대구·부산·경남은행 연 4.0%, 광주·전북은행 연 3.8%다.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0.5%p로 11개 은행 모두 같다. 소득 우대금리는 △층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고 1.0~1.7%p로 나타났다. 광주·전북은행 1.7%포인트, 대구·부산·경남은행 1.5%p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은 연 1.0%p를 제공한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로 같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 취급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뉴시스**

## 광주-부산TP, 지역기업 기술이전 촉진 '맞손'

사업화 활성화 등 업무협약 양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광주테크노파크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주, 부산 지역 내 우수기술·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광주, 부산 지역 내 기술수요 및 기술이전 중개를 위한 정보 공유, 우수공급기술 발굴 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행사 개최 협력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협력 등 우수기술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인구 대비 연구원 수 등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민간연구개발 투자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 확보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업무협약을 맺은 양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간 기술교류활성화와 사업화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이전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을 모집중에 있다. 모집대상은 광주시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2개년 이내 광주TP의 중개를 통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곽지혜 기자**

## 도시·산업 인프라 안전도 측정 '광신경망 센서' 주목

한국광기술원 개발 성공 '저비용' 사각지대 최소화

한국광기술원은 통신용 광케이블을 인체의 신경망처럼 이용해 도시·산업 인프라의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광신경망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개별 광센서는 포인트형 센싱 방식으로 감시 가능 영역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통신·전원선 없이 온도, 진동, 변형 등 다중 물리량의 분포 측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반면 광신경망 센서는 수km 이상의 광섬유 케이블이 포설된 모든 구간에 대해 별도의 통신·전원선 없이 온도, 진동, 변형 등 다중 물리량의 분포 측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기존 광센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사각지대 없이 감시 대상에 위협이 될 수 있



는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한국광기술원에서 개발한 광신경망 센서는 최대 10km 길이의 광섬유를 신경망처럼 운영할 수 있어 도시나 산업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개발 기술은 현재 도심설비·산업시설 안전진단, 국방 경계감시 등의 분야에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데이터를 수집·학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등 실증 중이다.

해당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광기술원(총괄), 중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한국광기술원은 또 ㈜노티스, ㈜우리시스템 등 관련 전문기업과 함께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김명진 광기술원 광정밀계측연구센터장은 "이번에 개발한 광신경망 센서와 같은 모니터링 기술을 상용화한 장비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광신경망 센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과 함께 인프라 이상징후의 감시 및 예방보수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